영어어문교육 *제18권* 4호 2012년 겨울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정 구성 및 학습자 인식도 분석을 중심으로*

권 선 희
(부산외국어대학교)

Kwon, Sun-Hee. (2012). Development of general English courses at the University level: Analysis of curricular and learner need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8*(4), 211-235.

In an effort to develop an effective general English program of a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curricular and learner needs for general English courses of universities. The curricular of general English programs collected from a total of fifty seven (N=57) universities in South Korea were analyzed to examine class teaching hours, credits, courses, diffentiated-level classes, on-line courses, and a waiving policy of credits based on student proficiency. Also the survey and the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the freshmen students studying in one university (N=801) to find out their needs on general English courses. The curricular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s: 1) most of universities preferred 6 hours/6 credits English courses with four skills integrated; 2) in twenty universities (N=20), there existed a gap between class teaching hours of general English courses and academic credits student receive from the courses; 3) almost half of university adopted diffentiated-level classes and a waiving policy of general English courses. The results of survey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have strong needs for improving their practical English skills and differentiated-level education. Also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perception on using online class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English proficiency.

[General English program at a university/curricular analysis/needs analysis, 교양영어프로그램/교육과정분석/학습자요구분석]

I. 서론

본 연구는 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조사 및 학습자 요구도 조사를 통해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기초 영어능력 연마가 근본 목적이지만,

* 이 논문은 2012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최근의 현실은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취업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 교육방안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 실제 지난 수년 간 일부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은 토익 혹은 비즈니스 영어와 같은 실용적인 교과목을 제시하고, 원어민 교수의 영어회화 수업을 확대하거나 전공영어 위주의 교과목 을 편성하는 등 실용적 측면을 강화한 프로그램 모형을 추구해 왔다(성명희, 장형지, 김현지, 2007; 하명애, 2010). 그러나 교양영어 강좌의 수업 시수 확보의 문제부터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 문제까지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자 요구가 전적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Pyo, 2006; 김현옥, 이혜경, 2010; 송미정, 박용예, 2004; 하명애, 2010).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대학 영어 교육이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상 어려움과 학습자 요구가 절충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교양영어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서 연구의 출발점을 찾는다. 본 연구자가 재직하는 대학교는 광역시 소재의 사립대학교이며 언어 관련 학과가 많은 학교 특성상 어학 관련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구축된 편이라 할 수 있다. 본 대학교의 교양영어 교육은 2005년 이후 필수가 아닌 선택 교과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즉 교양영어를 수강하기 원하지 않으면 타외국어(일본어와 중국어)를 선택하여 교양외국어로서의 학점(6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학습자들의 교양외국어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 프로그램 운영 결과, 영어를 선택하여 수강하는 학생이 전체 신입생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실제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 요구가 크다는 점과, 실용적인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대학교에서는 최근 교양영어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시도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기초작업으로써 두 가지 작업이 진행되었다. 전국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과정 현황 분석이 그 첫 번째이고 실제 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 인식도 조사가 그 두 번째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전국 소재 4년제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과정 수업시수와 이수학점, 교과목 현황, 수준별 학습, 온라인 학습, 영어능력 인증제는 어떠한 것인가?

둘째,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학습자들의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현황 조사와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기대 및 수요 파악을 통해,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논의로 요약된다. 첫째는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내용을 제공할 것, 둘째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육모형을 제시할 것, 그리고 셋째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학습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지원 환경을 제시할 것이다. 첫 번째 논의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요구도 조사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두 번째 논의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단계별/수준별 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논의는 멀티미디어가 활용되는 사이버클래스를 통한 교양영어강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2000 년도 이후 약 70 편 이상의 국내 연구 논문들을 통해 심도있게 다루어져 왔는데[1] 이러한 연구 결과와 발맞추어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과정도 다양한 각도로 변화를 모색해 왔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요구 분석은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하명애(2010)는 지방 소재 사립대학교 368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영어의 수강 동기 및 목적, 개설 교과목, 수준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방식 등에 대한 학습자 인식도를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조사 결과, 학습자들은 공인 영어 시험 준비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실용적 교과목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보였으며 수준별 수업에 대한 요구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교수진과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들은 평가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영어 능력 하위 집단은 상대평가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필요함이 주장되었다. Pyo(2006)는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교양영어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학습자 인식도와 교수자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11 명의 학습자들은 실용적인 교과목과 원어민 교수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강한 요구를 표현한 반면, 5 명의 교수자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에 회의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및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부담감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김현옥(2007), 성명희, 장형지와 김현진(2007)과 그리고 임정완(2006) 등은 모두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학습자 인식도 혹은 교수자 인식도 조

[1] 국내논문검색은 KISS, 교보문고스칼라, DBpia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사를 통해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은, 학습자들은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한 도구적 동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연구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실용적 가치를 반영한 교육 목표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은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능력에 맞춰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실현되고 있는가 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교양영어의 수준별 프로그램, 단계별 교육모형, 그리고 영어 능력 인증제 적용 등이다. 교양영어의 수준별 혹은 단계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정덕교(2010)은 한양대의 수준별 교양영어 수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차별화된 영어교육이 학생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제시한다. 김현옥과 이혜경(2010)은 수준별 학습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과 2 단계 수준별 학습 과정을 적용받은 그룹을 비교하였고, 또한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과 3 단계의 수준별 교양영어 교육과정을 적용받은 그룹을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단일학습 그룹과 2 단계 수준별 학습 그룹의 비교 시, 학습자들의 언어능력 향상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단일학습 그룹과 3 단계 수준별 학습 그룹의 언어능력 향상도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교재 사용에 대한 만족도나 언어기능별 수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준별 학습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분화된 수준별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교양영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또다른 제도는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학점 이수를 감면해주는 영어능력 인증제 제도이다. 조정순(2002)는 전국 67 개 대학을 대상으로 영어능력 인증제 유무를 조사하였는데, 15 개 학교가 TOEIC/TEPS/TOEFL 과 같은 영어공인시험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의 교양영어 필수이수학점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 개 학교가 학교 자체시험 결과에서 일정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거나 영어권 국가의 어학연수 경험을 인정하여 교양영어 필수 이수학점을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능력 인증제에 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도가 조사되었는데 두 집단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교수 72%, 학생 77%)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학생들은 찬성하는 이유로 공인시험준비과정에서 영어실력 향상의 기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방영주(2004)역시 영어능력 인증제에 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반대하는 의견(교수 57.7%, 학생 52.3)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반대의 이유로서 교수와 학생 모두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존재 의미가 상실될 우려를 언급하였다.

셋째,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학습 지원 환경에 대한 연구로써 활발히 이루어

지는 영역은 사이버클래스의 활용이다. 컴퓨터 기술 활용의 증가와 사이버클래스가 제공하는 비용과 공간의 절약은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과 연결되었다. 사이버클래스 활용에 대한 학습자 인식도는 여러 연구에서 조사되었고 학습자 인식도는 긍정적인 견해에서부터 부정적인 견해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심(2007), 김희진과 이현구(2011)는 대학 교양영어 교육에서 교실수업과 사이버학습이 결합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학습 효과 및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학습자들은 교양영어 수강에 있어 긍정적인 학습자 인식도를 보여 주었다. 또한 김태영, 김은주, 김혜영(2011)은 블렌디드 러닝 교양영어 수강생들의 학습 동기가 연구 기간 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제시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학습이 교양영어 수강생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과 아울러 사이버클래스 활용에 대한 개선점들도 제시되었는데 정양수(2010)는 사이버 학습을 기반으로 한 교양영어 강좌에서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크지 않음을 지적하며 특히 사이버클래스의 불충분한 학습 자료 개선과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낮은 소속감 및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정숙경(2010) 역시 사이버 수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계적이지 못한 수업관리와 낮은 학습동기, 강의 중심의 수업방법 등이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의 사이버클래스 활용이 효율적이기 위해서 우수한 컨텐츠 개발과 교수자의 관리 및 다양한 교수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타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에 관한 자료 수집

교양영어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국 57개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과정이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 대학교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에서 2011년 교육역량강화산업에 선정된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해당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정보공시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 탑재되어 있는 각 대학교의 2011년도 대학교육과정 편람을 기본 자료로 하여 조사되었다. 선정된 대학은 학생수 5천명 미만, 5천명 이상 1만명 미만, 그리고 1만명 이상의 학교로 나누어졌으며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학생 수에 따른 대학 범주별 최소 5개 이상의 대학을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인 학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양영어 교육과정 조사 대상 대학교 현황

구분	서울 및 수도권	지방
5천명 미만	5	10
5천명 이상-1만명 미만	7	8
1만명 이상	13	14
전체	25	32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본 것은 교양영어 주당 필수시간과 학점 이수체계, 교과목 구성, 수준별 수업 여부, 온라인강의 여부, 인증제 여부이다. 웹사이트에 탑재된 대학교육과정 편람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수준별 학습, 온라인 강의 여부 및 인증제 여부 부분은 각 학교의 담당교육기관 담당자를 직접 접촉하여 조사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살펴 본 교양영어 교육과정 조사 항목이다.

표 2
교양영어 교육과정 검토 항목

구분	내용
수업시수/이수학점	수업시수와 필수이수학점
교과목 구성	교과목 이름 및 언어 기술별 교과목
온라인강의 여부	온라인 강의를 교양영어 프로그램안에 포함
수준별 수업 여부	수준별 분반 여부
영어능력 인증제 여부	일정 능력 이상 과목 이수 면제 제도 유무

2. 학습자 요구도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면담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지방 소재의 4년제 A대학에서 교양외국어로서 영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대학 교양영어 과목은 2시간 오프라인, 1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되며 영어 읽기 및 이해를 주 수업영역으로 한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영어를 교양외국어로 선택한 925명의 수강생들이었으나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해 빠짐없이 응답하고 학기 중 수업시간에 실시한 모의 토익시험에 응시한 학생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켜 총 801명의 응답지가 분석되었다. 설문 조사는 학기말에 실시되었으며 설문 조사 참여자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조사 참여자 현황

구분	응답자 수 (비율)					합계
성별	남 327(41%)	여 474(59%)				801 (100%)
학년	1학년 712(89.2%)	2학년 42(5.2%)	3학년 35(4.3%)	4학년 12(1.4%)		801 (100%)
단과대학	서양어대 145(18.1%)	동양어대 157(19.6%)	인문사회대 158 (19.7%)	이공대 163(20.3%)	상경대 178(22.2%)	801 (100%)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 요구도 설문 조사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첫째는 교양영어 교육과정 구성(과목 및 학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둘째는 수준별 학습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셋째는 사이버클래스 이용에 대한 학습자 견해를 조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양영어 수강에 대한 학습 동기 및 학습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5문항이며 복수응답이 가능한 선택형 8문항과 등간 척도(3단계, 5단계)를 이용한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 답변에 대한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의 토익점수를 바탕으로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등간 척도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된 학습자 요구도에 대한 보충적 자료 확보를 위해 9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설문조사 2주 후 이루어졌고 1인당 약 30분-1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설문조사의 각 영역별 주요 질문들과 관련된 것으로 이루어졌다.

Ⅳ. 연구결과

1. 교양영어 교육과정 분석 결과

전국 57개 대학의 교양영어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지역 대학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우선 교양영어 주당 필수시간과 학점이수 체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4와 같다. 57개의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에서 교양영어 수업시수/필수이수학점으로써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6학점/6시간 유형(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4학점/4시간(14.0%)과 8학점/8시간(12.2%) 유형 또한 선호되고 있는 교양영어 학점 구성 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교양영어 주당 수업시간 및 필수 이수학점 현황

구분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전체
학점	시간	빈도(%)	빈도(%)	빈도(%)
0학점	0시간		3(9.38)	3(5.26)
2학점	2시간		2(6.25)	2(3.51)
	3시간	1(4.00)		1(1.75)
3학점	3시간	1(4.00)	2(6.25)	3(5.26)
4학점	4시간	3(12.00)	5(15.63)	8(14.04)
	6시간	4(16.00)	1(3.13)	5(8.77)
	8시간	1(4.00)	1(3.13)	2(3.51)
5학점	6시간		1(3.13)	1(1.75)
	7시간		1(3.13)	1(1.75)
6학점	6시간	8(32.00)	7(21.88)	15(26.32)
	12시간	1(4.00)		1(1.75)
	21시간	1(4.00)		1(1.75)
8학점	8시간	4(16.00)	3(9.38)	7(12.28)
	10시간	1(4.00)	1(3.13)	2(3.51)
	14시간		2(6.25)	2(3.51)
	16시간		1(3.13)	1(1.75)
12학점	12시간		2(6.25)	2(3.51)
전체		25	32	57(100)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교양영어 필수 이수학점 분포는 0학점부터 12학점까지 다양했다. 0학점/0시간의 경우는 교양영어를 필수로 정하지 않고 교양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중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인데 지방 소재 3개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위 표4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한가지는 교양영어 학점과 수업시간의 불일치이다. 필수 학점은 6-8학점이 우세하고 12학점 이상 되는 학교는 없지만, 수업시수는 10시간 이상 21시간까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수업시수로 살펴 보았을 때 6시간 이상의 교양영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40개로 이는 전체 70%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양영어 교육시간의 증가에 대한 요구를 학교 측이 수용하기 위해 취한 행정적 조치라고 파악된다. 즉 전체 교양학점 시수를 고려할 때 교양영어 학점에 대한 비중은 일정 부분 이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교양영어 학점은 높이지 않고 수업시수만을 증가시키는 행정적 방안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당 학점보다 교육 시수가 많을 때에는 교육비 또한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대학에서는 교양영어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한 가지로 수업시수 증가를 선택하여 일정한 정도의 교육비 환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양영어 교과목 구성을 살펴 보았다. 교양영어에서 실제 다루어지는 영역이 어떤 것인가를 조사하였는데 표 5에서 나타나듯 영어의 네 가지 기술을 교육과정에서 모두 가르치는 학교는 전체 19개(3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읽기, 쓰기, 말하기 세 영역으로 이루어진 교과과정(18.5%)과 말하기 만의 교과과정(18.5%)이 차지하였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진 교과과정은 대부분 읽기/쓰기가 통합된 교과목으로, 그리고 말하기/듣기가 통합된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경우이며, 읽기, 쓰기, 말하기 세 영역이 교과과정을 이루는 경우는, 읽기/쓰기가 통합되고, 말하기(회화)가 분리된 교과목으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표 5
교양영어 교과목 구성

구분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전체
	빈도(%)	빈도(%)	빈도(%)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13(52.00)	6(20.68)	19(35.19)
읽기, 쓰기, 말하기	4(16.00)	6(20.68)	10(18.52)
읽기, 말하기, 토익	1(4.00)		1(1.85)
읽기, 쓰기	5(20.00)	1(3.44)	6(11.11)
읽기, 듣기	1(4.00)	1(3.44)	2(3.70)
말하기, 쓰기		1(3.44)	1(1.85)
말하기, 토익	1(4.00)	1(3.44)	2(3.70)
읽기		3(10.34)	3(5.56)
말하기		10(34.48)	10(18.52)
전체	25(100.00)	29(100.00)	54[2](100)

교양영어 교과목 구성에서 특징적인 점인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의 차이점이다. 표 5 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절반 이상(52%)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네 가지 영역을 모두 교육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데 비해, 지방 소재 대학은 말하기 영역만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곳이 가장 높은 비율(34.48%)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하기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교가 24 개로 82.7%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지방 소재 대학의 교양영어 과정이 읽기 혹은 쓰기와 같은 문어체 능력의 향상보다는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6 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지의 수준별 학습 여부와 온라인 강좌가 교양영어 교과목의 일부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

[2] 교양영어를 필수로 하지 않는 3개 학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리고 일정한 자격을 갖출 때, 즉 공인시험 성적 등이 있을 때, 교양영어 과목 이수 면제 제도가 있는 지의 영어능력 인증제(학점 인정제)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수준별 분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27 개로 교양영어 강좌를 실시하는 전체 54 개 학교 중 절반을 차지하였다. 교양영어 강좌의 일부로 온라인 강좌가 실시되고 있는 학교는 3 개(5.56%)에 그쳐 절대 다수의 학교가 온라인 강좌는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영어능력 인증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총 30 개로 55.6%의 학교가 일정한 공인 성적이 있으면 적게는 2 학점, 많게는 교양영어 학점 전체를 면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었다. 또한 공인시험 성적 점수에 따라 이수 학점을 차등화하는 학교도 있었다.

표 6

교양영어 수준별 분반, 온라인 강좌, 영어능력 인증제 유무

구분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전체
		빈도(%)	빈도(%)	빈도(%)
수준별 분반	실시	18(72.00)	9(31.03)	27(50.00)
	실시하지 않음	7(28.00)	20(68.96)	27(50.00)
전체		25(100.00)	29(100.00)	54(100.00)
온라인 강좌	실시	1(4.00)	2(6.89)	3(5.56)
	실시하지 않음	24(96.00)	27(93.10)	51(94.44)
전체		25(100.00)	29(100.00)	54(100.00)
영어능력 인증제	실시	16(64.00)	14(56)	30(55.56)
	실시하지 않음	9(36.00)	15(44)	24(44.44)
전체		25(100.00)	29(100.00)	54(100.00)

수준별 분반 여부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지방 소재 대학 간의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데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는 70% 가량의 학교가 수준별 분반을 실시하는 데 비해, 지방에서는 실시하는 비율이 31%에 그쳐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는 교양영어에서의 수준별 분반 운영이 적극적으로 시도되는 데 비해 지방 소재 대학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강좌 운영의 유무와 영어능력 인증제의 경우, 실시하는 학교와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비율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에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은 조정순(2002)의 연구에서 22.3%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상승은 교양영어 수강자들의 학습수준을 고려하고 동시에 취업 등에 필수적인 공인시험 성적 취득을 학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러한 인증제 실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학습자들은 이수 면제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학습을

없애고, 학습자들에게 공인성적 취득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수 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2. 설문 조사 결과

1) 교육과정 구성

A대학에서 교양영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신입생 801명을 대상으로 교양영어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양영어에서 개설되기 원하는 교과목, 주당 교양영어 수업 시간, 교양영어 총 이수 학점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교양영어에서 개설되기 원하는 교과목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개설 희망 교과목

구분	빈도	비율(%)
영어쓰기	76	6.0
영어말하기	371	29.4
영어듣기	185	14.6
영어문법	153	12.2
영어읽기	83	6.6
토익	307	24.3
토익말하기	87	6.9
전체	1263	100

복수 응답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희망 개설 교과목은 영어 말하기(29.4%)와 토익(24.3%)이다. 영어 말하기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대학 입학 이전 쉽게 연마할 기회가 없었던 말하기 부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큰 점에서 연유할 수 있으며 토익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은 이미 신입생 시기부터 취업과 진로 준비를 위해 영어 공인성적의 획득에 대한 요구가 큰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희망 개설 교과목으로 영어 말하기와 토익의 뒤를 잇는 것은 영어 듣기(14.6%)와 영어 문법(12.2%)이며, 영어 읽기(6.9%)와 영어 쓰기(6.0%)에 대한 요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읽기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것은 학생들이 기존 입시시험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영어 읽기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해당 A 대학의 교양영어 강좌가 읽기 중심인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교양영어 주당 수업시수와 총 이수학점에 대한 요구도에서는 주당 3 시간과 총 6 학점 이수가 적절하다라는 응답자가 많았다(표 8). 이는 A 대학 현 교양영어의 구성 수준과 유사한데, 대부분의 응답자들(80% 이상)은 1 학년 필수 과정인 교양외국어 과목은 주당 3 시간, 그리고 총 6 학점 이수가 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은 주당 수업시수 및 총 이수학점에 대한 요구도의 결과이다.

표 8
교양영어 주당 수업시수 및 총 이수학점에 대한 요구도

주당 수업 시수			총 이수 학점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3시간 미만	72	9.0	6학점 미만	92	11.5
3시간	646	80.6	6학점	656	81.9
3시간 이상	83	10.4	6학점 이상	53	6.6
전체	801	100	전체	801	100

2) 수준별 학습에 대한 견해

수준별 학습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를 얻기 위해 우선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또한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다면 혹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역시 제시하였다. 수준별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수준별 학습 유무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다	569	71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	232	29
전체	801	100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 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1%인 569명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들(방영주, 2004, 조정순, 2002)에서 밝혀진 바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은 교양영어의 수준별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10).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 조사하였으며 모두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큰 이유로 수준에 맞는 평가방식(43.6%)과 수준에 맞는 교재사용(25.4%)을

꼽았다. 또한 적지 않은 응답자들이 학습분위기 조성(19.5%)을 위해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분반기준의 모호함(40.8%)과 학습 효과에 대한 의문성(26.5%)이 꼽혔는데 위화감 조성(17.7%) 역시 언급되었다.

표 9와 표 10의 응답 결과는 적절한 평가와 교재 사용이 이루어지는 수준별 학습에 대한 학습자 요구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또한 수준별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은 분반 기준과 학습효과에 대한 의문성으로 인해 반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결국 수준별 학습의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표 10
수준별 학습 운영의 이유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 이유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학습에 적극적 참여	93	11.5	위화감 조성	52	17.7
학습분위기 조성	158	19.6	학습효과에 대한 의문성	78	26.5
수준에 맞는 교재사용 기대	205	25.4	분반기준의 모호함	120	40.8
수준에 맞는 평가방식	352	43.6	평가방식의 불공평함	44	15.0
전체	808	100	전체	294	100

3) 사이버클래스 이용

1시간의 온라인 수업을 이용하는 A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사이버클래스 이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은 사이버클래스 이용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와 학생들이 사이버클래스를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사이버클래스 이용 정도

사이버클래스가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사이버클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매우 그렇다	16	2.0	매우 그렇다	32	4.0
그렇다	106	13.2	그렇다	154	19.2
보통이다	333	41.6	보통이다	329	41.1
그렇지 않다	225	28.1	그렇지 않다	213	26.6
매우 그렇지 않다	121	15.1	매우 그렇지 않다	73	9.1
전체	801	100	전체	801	100

사이버클래스 이용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약 41% 이상이 '보통이다' 라고 답하였고 사이버클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역시 비슷한 수의 응답자(41%)가 '보통이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이버클래스가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43%)고 답한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말한 응답자(15%)보다 월등히 많고 사이버클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35.7%)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자(23.2%)보다 많다는 사실은 사이버클래스 운영에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면담 과정에서 사이버클래스 운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면담자들이 지적한 큰 요인은 사이버클래스 이용에서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부분이다.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반복학습이 가능한 사이버클래스 학습 환경에서도 실제 교수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자극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클래스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사이버클래스 이용 영역

구분	빈도	비율(%)
원어민 발음듣기	222	24.8
단어 및 문법 설명	99	11.1
퀴즈	350	39.1
과제제출	223	24.9
전체	894	100

사이버클래스 이용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퀴즈(39.1%)이며 과제 제출(24.9%)이 그 다음인데 이는 1시간의 온라인 수업이 퀴즈와 작문 과제 등으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퀴즈는 사이버클래스에서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예·복습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활동인데(하명애, 2010) 본 연구의 학습자 역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사이버클래스에 탑재된 원어민의 본문 읽기 부분(24.8%) 역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강 동기, 학습환경 및 영어학습에 대한 학습 성향

교양영어과목에 대한 학습자 수강 동기 및 학습자 개인의 학습 성향을 조사해 보았다. 우선 교양영어 과목 수강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표 13)에서 많은 학생이 기본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답하였으나(47.1%) 동시

에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라는 대답에도 비슷한 수(41.1%)의 학생들이 답함으로써 필수 과목으로서의 강제성이 실제 수강에도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표 13
교양영어 수강 동기

구분	빈도	비율(%)
기본영어실력 향상	506	47.1
취업 대비 실용영어능력 향상	92	8.6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필수과목 중 하나	441	41.1
전공학과 공부에 도움	24	2.2
전체	1063	100

다음으로 교양영어의 수준이 자신의 언어능력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다수의 응답자(65.2%)가 적당하다고 답하였다(표 14). 교양영어 수강이 힘들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의 질문에는 많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수업환경 또한 수강의 어려운 점으로 언급되었는데(25.0%) 이는 심층면담 결과, 교양영어 과목 개설 시간이 오전 1,2,3교시인 것과 크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교양영어 과목 수준과 수강 시 힘든점

교양영어 과목의 수준			교양영어 과목 수강 시 힘든 점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너무 어렵다	22	2.7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족	295	43.1
어렵다	110	13.7	수업분위기(수업수준 등)	97	14.2
적당하다	522	65.2	수업환경(시간대 등)	171	25.0
쉬운 편이다	130	16.2	교재의 문제점	76	11.1
너무 쉽다	17	2.1	교수방식	46	6.7
전체	801	100	전체	685	100

교양영어 과목 수강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영어학습에 투자하는 시간이 주당 몇 시간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1시간 이하라는 답변이 우세하였다(49.2%).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가 실제 상당히 낮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의 질문에서는 토익(36.7%)에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으며 문법(20.3%)와 읽기(16.2%) 에도 비교적 높은 응답이 나왔다.

표 15
영어학습 투자시간 및 과목

주당 영어학습 투자시간 (교과목수강시간 제외)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과목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1시간 이하	394	49.2	영어쓰기	31	3.9
2-4시간	337	42.1	영어말하기	66	8.3
5시간-10시간	61	7.6	영어듣기	108	13.6
10시간 이상	9	1.1	영어문법	161	20.3
			영어읽기	129	16.2
			토익	292	36.7
			토익말하기	8	1.0
전체	801	100	전체	795	100

5) 설문 응답에 대한 집단간 비교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 요구도에 대해 학습자의 영어능력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의 토익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응답자들을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3] 복수응답 문항을 제외한 등간 척도 설문 문항의 응답에 대해 이 세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분석을 통해 조사하였다. 모의 토익시험은 교양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던 시기인 학기말에 같이 실시되었다.

표 16
교양영어 주당시간 집단간 비교

		3시간 미만	3시간	3시간 이상	전체
상집단	빈도	5	78	11	94
	집단 내%	5.3	83.0	11.7	100
중집단	빈도	23	252	33	308
	집단 내%	7.5	81.8	10.7	100
하집단	빈도	43	317	39	398
	집단 내%	10.8	79.4	9.8	100
전체	빈도	71	647	83	801
	전체 %	8.9	80.8	10.4	100
X^2 = 4.175			df = 4		Sig = .383

[3] 연구 대상인 전체 801명의 학생의 그룹 분류는 학생들의 점수가 특정 점수대에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하여 한 그룹에 일정한 인원(1/3)를 배치하기 보다는 점수대별로 상집단 94명, 중집단 308명, 하집단 398명으로 분류하였다.

표 17

교양영어 총 이수학점 집단간 비교

		6학점 미만	6학점	6학점 이상	전체
상집단	빈도	6	82	6	94
	집단 내%	6.4	87.2	6.4	100
중집단	빈도	29	258	21	308
	집단 내%	9.4	83.8	6.8	100
하집단	빈도	56	317	26	398
	집단 내%	14.0	79.4	6.5	100
전체	빈도	91	657	53	801
	전체 %	11.4	82.0	6.6	100
X^2 = 6.368		df = 4		P = .173	

표 16과 표 17은 교양영어 주당시간과 총 이수학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당 3시간의 교양영어 수업과 총 6학점의 이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들은 상, 중, 하 집단 모두 주당 3시간과 6학점의 이수가 교양영어 교육과정 구성으로써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양영어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가의 질문의 응답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조사하였다. 표 18에서 나타나듯이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168). 이는 상, 중, 하 집단에 상관없이 응답자들은 수준별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18

교양영어 수준별 학습 유무 여부 집단간 비교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상집단	빈도	69	25	94
	집단 내%	73.4	26.6	100
중집단	빈도	207	101	308
	집단 내%	67.2	32.8	100
하집단	빈도	293	106	398
	집단 내%	73.4	26.6	100
전체	빈도	569	232	801
	전체 %	71.0	29.0	100
X^2 = 3.565		df = 2		P = .168

표 19는 사이버클래스의 유용성에 대한 영어능력별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사이버클래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상, 중, 하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다(P=.037). 상, 중, 하 집단 모두 '보통이다' 에 가장 많은 응답의 비율을 보였으나 '도움이 된다' 혹은 '매우 도움이 된다' 에 대해 응답한 상집단의 비율(20.2%)이 중집단(17.5%) 혹은 하집단의 비율(15.5%)보

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사이버클래스 학습에서 상집단이 보다 강한 동기를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며 사이버클래스를 통해 학습에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9

사이버클래스 유용성 집단간 비교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전체
상집단	빈도	2	17	37	28	10	94
	집단 내%	2.1	18.1	39.4	29.8	10.6	100
중집단	빈도	9	45	118	98	38	308
	집단 내%	2.9	14.6	38.3	31.8	12.3	100
하집단	빈도	5	44	178	99	73	398
	집단 내%	1.3	11.0	44.6	24.8	18.3	100
전체	빈도	16	106	333	225	121	801
	전체 %	2.0	13.2	41.6	28.1	15.1	100
X^2 = 16.437			df = 8			P = .037	

사이버클래스의 유용도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사이버클래스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집단간 차이(P=.022)가 나타났다. 표 20이 보여주듯 상집단에서 사이버클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비율은 30%를 넘는 반면 중집단과 하집단은 각각 20%와 15%에 그쳐 사이버클래스의 활용에 있어 집단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집단에서는 사이버클래스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1%에 이르러 하집단에서의 사이버클래스 활용률이 많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사이버클래스 활용도 집단간 비교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	적극적으로 활용	보통으로 활용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거의 활용하지 않음	전체
상집단	빈도	4	29	35	23	3	94
	집단 내%	4.3	30.9	37.2	24.5	3.2	100
중집단	빈도	15	64	124	79	26	308
	집단 내%	4.9	20.8	40.3	25.6	8.4	100
하집단	빈도	13	61	170	111	44	398
	집단 내%	3.3	15.3	42.6	27.8	11.0	100
전체	빈도	32	154	329	213	73	801
	전체 %	4.0	19.2	41.1	26.6	9.1	100
X^2 = 17.838			df = 8			P = .022	

표 21은 교양영어의 수준이 자신의 영어능력에 비추어 어떤가의 질문에 대한응답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P=.000), 상집단의 29.8%가 교양영어 수준이 쉽다고 응답한 데 비해 하집단은 8.5%만이 쉽다고 답해 집단간 교양영어 수준에 대한 인식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21

교양영어 수준 집단간 비교

		너무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쉽다	너무 쉽다	전체
상집단	빈도	0	3	58	28	5	94
	집단 내%	0	3.2	61.7	29.8	5.3	100
중집단	빈도	4	23	204	68	9	308
	집단 내%	1.3	7.5	66.2	22.1	2.9	100
하집단	빈도	18	84	260	34	3	398
	집단 내%	4.5	21.1	65.2	8.5	0.8	100
전체	빈도	22	110	522	130	17	801
	전체 %	2.7	13.7	65.2	16.2	2.1	100
X^2 = 82.391			df = 8			P = .000	

개인이 교양영어 외 영어 학습에 투자하는 주당 시간이 얼마인가의 질문에 대해 집단간 차이(P=.000)가 역시 나타났다. 표 22에서 상집단에서는 2-4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가장 높았으나 중집단과 하집단에서는 1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7.7%와 55.4%로 가장 높았다. 즉 학습자들은 영어능력(토익성적)이 낮을수록 주당 영어학습에 투자하는 시간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전반적으로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가 현저히 낮고 결과적으로 학습에 대한 노력 역시 상집단에 비해 적게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2

개인 영어학습 주당 시간 집단간 비교

		1시간 이하	2-4시간	5-10시간	10시간 이상	전체
상집단	빈도	26	45	18	6	94
	집단 내%	27.7	46.8	19.1	6.4	100
중집단	빈도	147	136	24	1	308
	집단 내%	47.7	44.2	7.8	0.3	100
하집단	빈도	221	157	19	2	398
	집단 내%	55.4	39.3	4.8	0.5	100
전체	빈도	394	337	61	9	801
	전체 %	49.2	42.1	7.6	1.1	100
X^2 = 60.594			df = 6		P = .000	

3. 응답자 면담 조사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된 학습자 요구도에 대한 보충적 자료 확보를 위해 9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은 상, 중, 하 각각의 그룹에서 3명씩 총 9명을 지원받아 1인당 30분-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면담은 설문 조사 2주 후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은 설문 조사의 각 영역별 주요 질문들과 관련된 것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면담에서 밝힌 교양영어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면담자의 의견은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과 동시에 신입생으로서 영어 학습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있음을 보여 준다.

S5: (여기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중 한가지를 교양외국어로 선택하게 해서 좋아요. 물론 가장 중요한 영어를 선택했지만요. 고등학교 때 까지 지겹도록 한 영어라서 다른 언어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한다고 하니 영어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2: 제가 18학점 듣는데요, 주당 3시간 영어 수업은 충분한 것 같아요. 다른 필수 교양들도 많고 해서요. 그리고 영어 공부는 말하기나 뭐 이런 것 하고 싶은데... 전공이 어학이 아니라서... 학원이라도 가서 말하기 (연습) 해야 될 것 같아요.

위 S2는 학교 수업으로서의 교양영어는 주당 3시간 수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필수과목으로써 6시간/6학점을 선호한다는 의견과도 동일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호도는 전공과목 및 타교양 교과목 수강 부담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S2는 영어 말하기 등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사교육기관에까지 가서라도 학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학교 교양교육이 교과목 선정 혹은 학습 시수 증가를 통해 결국 이러한 학습자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수준별 학습에 대해서 면담자들은 그룹별로 다른 견해를 보여 주었다. 상집단과 하집단의 학생들은 수준별 학습이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지만 중집단 학생들은 효과에 대한 의문을 표하였다.

S7(하): 저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은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S8(하):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무슨 뜻인지 알지?'하면 애들이 '네' 할 때, '전 모르는 데요'라고 절대 답할 수 없잖아요...

S1(상):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이 많고, 수업에 왜 들어 왔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수업했으면 좋겠어요.

S6(중): 고등학교 때도 수준별 해봤는데요... 딱히 효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학교 영어기초 수업인데, 실력으로 다시 반을 나누는 것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준별 학습에 대해 면담자들은 성적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상대평가 방식과 문법 위주의 (중간)시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S9: 영어는 반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던데요, 그 애들이 모두 좋은 학점 딸 것 같애요. 상대평가라고 교수님이 그러시던데, 저 같이 영어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학점 따긴 힘든 건 아닌가 싶어요.

S4: 중간고사 시험에 공부를 안 하진 않았는데요... 시험 잘 못 봤어요. 문법을 그렇게 많이 물어 볼 줄 몰랐어요.

면담 과정에서 활발히 논의가 된 것은 사이버클래스 운영이다. 면담자들은 사이버클래스의 반복 학습과 원어민 발음의 본문 듣기, 그리고 공지사항 확인,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의 용이성 등을 장점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이버클래스에서 학습 방향에 대한 설명의 부재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이 없음을 단점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1시간의 사이버클래스 수업이 지나치게 퀴즈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또한 지적하였다.

S7: 집이 울산이거든요, 1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만족이예요.(교양영어) 강의가 1-3교시에 잡혀 있잖아요. 1교시 수업 맞추어 오는 것 너무 힘들어요.

S4: 내용 전체에 대한 설명이나 원어민 읽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공부하기 좋아요. 교수님 공지사항도 꼭 확인해요.

S1: 1시간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동영상으로 수업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온라인 상에서 퀴즈 풀고 간단한 영작 과제 하면 그게 다예요. 처음엔 모르는 것은 게시판에 질문도 하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간단히 답변하시는 것 같애요.

S7: 사이버클래스 내용 설명은 자세한데 제가 혼자서 뭘 공부해야 하는 건지... 교수님이 그냥 설명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위 면담 내용은 사이버클래스의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클래스가 교재 내용의 단순 전달과 학습 확인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학생들의 사이버클래스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있음을 암시한다. 학습자들은 온라인상으로 보다 활발한 교수자와의 접촉을 원하며, 다양한 교수 방식과 매체를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사이버클래스 구성이 퀴즈와 설명 중심의 내용 전달에서 벗어나 학습자-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는 학습 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기술지원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I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 조사와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인식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에서 뚜렷하게 발견된 점은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양적 강화의 노력이다. 전국 57개 대학 교양영어 교육과정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채택된 유형은 6시간/6학점과 4시간/4학점 수업유형으로써 전체 조사 학교의 35.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6시간 이상, 즉 7시간-21시간의 수업 시수를 편성한 학교가 전체 조사 학교의 35.8%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체 교육과정 형평상, 교양영어에 대한 제한된 학점 편성이라는 제약을 수업시수 증가를 통해 상충하고자 하는 현상으로 파악되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의 학습자 인식도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 역시 설문조사에서는 6시간/6학점의 유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하였지만, 적지 않은 학생(36.7%)이 토익을 수업 시간 외 공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심층 면담에서는 사설 학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등 영어 보충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양영어에 대한 수업시수 증가는 결국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대학 교양영어 교과목 구성에서는 영어의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4가지 기술을 모두 다루는 대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에서 교과목 구성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4가지 기술 모두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데 비해 지방 소재 대학에서는 말하기 기술만을 수업에 다루는 학교의 수가 우세하였다. 이는 지방 소재 대학에서 교양영어의 방향을 구어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취업 등을 위한 실용능력 향상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도 파악된다. 교양영어 프로그램이 영어 기술을 골고루 연마할 수 있는 교육과

정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양영어 과목이 배정되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4가지 영어 기술 모두의 뚜렷한 양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정덕교, 2010). 본 연구의 참여한 학습자 인식도 조사 역시 교양과목으로 가장 개설되기를 원하는 영역이 영어 말하기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취약한 언어기술을 선택, 집중하여 연마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 구성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고려된다.

셋째, 본 연구의 학습자 인식도의 조사에서 학생들은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해 찬성하는 학습자(72%)가 반대하는 학습자(28%)보다는 월등히 많았다. 응답자들은 수준에 맞는 평가 방식 및 적절한 교재 사용을 수준별 수업의 장점으로 언급하였으며 분반기준의 모호함과 위화감 조성을 수준별 수업의 단점으로 언급하였다. 면담에서 역시 수준별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엿볼 수 있었는데 교양영어의 수준별 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하듯이(김영숙, 이지연, 2009;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 2004) 분반 기준, 평가 방식, 교재 차별화 등 여러가지 제도 및 장치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학습자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자들은 사이버클래스 사용에 대해 언어능력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어 상집단은 사이버클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학생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하집단 학생들은 상당수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 학생들은 사이버클래스 이용에서 교수자와의 활발한 소통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결국 기존 연구(김지영, 2007; 김희진, 이현구, 2011; 정숙경, 2010, 정양수, 201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이버클래스에서 학습자-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과제 개발과 교수자의 적극적인 학습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습자 인식도 조사에서 학생들은 교양영어 과목 수강의 가장 중요한 동기로 기본 영어실력 향상을 언급하였지만 동시에 실제 취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하기와 토익과 같은 교과목에 대한 요구가 강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학생들의 영어능력과는 무관하게 일관된 요구였으며 결국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기초 영어능력 향상과 실용적 영어능력 향상, 양자 모두에 있음을 보여준다. 제한된 수업 시수, 교원확보, 그리고 교과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교양영어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이 짐작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한정된 수의 대학 교육과정과 특정 지역의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교양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대학생들의 기초영어능력과 실용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교육기관은 학습자 요구과 수요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꾸준히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영숙, 이지연. (2009).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수업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 64*(4), 337-368.

김지영. (2007). 웹 게시판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연구. *영어어문교육, 13*(3), 227-251.

김태영, 김은주, 김혜영. (2011). 온-오프라인 결합 교양영어 수강 대학생들의 학습동기 유형과 변화. *현대영어교육, 12*(1), 126-156.

김현옥. (2007). 교양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족도 및 인식 비교. *외국어교육, 14*(3), 179-205.

김현옥, 이혜경. (2010).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영어교육 연구, 22*(4), 75-101.

김희진, 이현구. (2011). 효과적인 블렌디드 러닝 수업운영 방식 연구. *영어교과교육, 10*(2), 85-114.

방영주. (2004). 영어능력 인증제, 능력별 교과과정, 그리고 대학 교양영어교육: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 대한 고찰. *영어어문교육, 9*(2), 193-211.

성기완, 표경현, 이현명. (2004). 대학 교양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모형개발연구. *외국어교육, 11*(2), 377-406.

성명희, 장형지, 김현진. (2007). 교양영어교육에 관한 학생 요구 조사: 보건계열 특성화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8*(3), 318-340.

송미정, 박용예. (2004). 대학 교양영어의 통합적 접근: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프로그램의 사례 연구. *영어교육, 59*(2), 179-211.

송희심. (2007). 대학 교양영어 교과목에서 온라인 매체 활용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교육, 14*(2), 209-231.

임정완. (2006). 대학 교양영어 과목 개선을 위한 학습자 요구분석. *현대영어교육, 7*(2), 130-149.

정덕교. (2010). 교양영어 교육에서의 수준별 영어수업 - 한양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4*(1), 177-197.

정숙경. (2010). 대학 사이버 영어수업의 효과적인 블렌디드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 *멀티미디어언어교육, 13*(3), 253-267.

정양수. (2010). 사이버 캠퍼스 기반의 교양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현대언어학회, 26*(1), 149-174.

조정순. (2002). 대학 교양영어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탐구. *영어교육, 57*(2), 365-394.

하명애. (2010). 대학 교양영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분석 연구. *영어교과교육, 9*(2), 269-299.

Pyo, K. (2006). Different Need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Curriculum Development.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3), 1-22.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권선희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부산시 남구 우암동 석포로 15, 608-738
Tel:051-640-3050
Email:skwon@bufs.ac.kr

Received in October, 2012
Reviewed in November,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12